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 얼굴에서는 빛 나오게 되어 있어

성경 말씀은 영적말씀이며, 영적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그린 말씀이라고 이 사람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잘못 되어 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되므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지면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도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시간이 이긴자 구세주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회생적인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요? 따라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항상 있으려면 영생의 희망이 있어야 되죠. 영생의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 있어야 영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찬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 드렸죠?

영생의 영을 간직하면 죽지 않게 돼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항상 회생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이기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생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되고 영생의 영을 가졌다가 되고 영생의 희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나 깨나 초초로 영생을 추구하는, 영생을 항상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영생의 영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의 영을 간직하면 영생의 영은 사망의 영에 반대되는 영인 고로 사망의

영이 소멸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인간 세상이 끝나는 고로 그것을 가지고 말세라고 하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끝 말(末) 자 인간 세(世)자 인간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인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없어져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고로 승리의 하나님은 바로 승승장구로 마귀와 더불어 싸울 적마다 이기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이 될 때 구세주가 된다고 그랬죠? 또한 구세주가 되어야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산다고 했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은 바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되는 고로 승리의 하나님이며, 승리의 하나님이 구세주이며,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상의 생명과일이며,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믿음이 있다가 되고 이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생명과일의 실체는 영생의 영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생명과일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베소 2:8)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영, 영생의 영을 부여 주는 것이 선물이지 죽는 영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의 영인 고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영생의 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죠? 그리고 믿음을 자체가 생명과일이요, 생명과일이 바로 영생을 주는 과일이니 성경 말씀



저승사자를 박살낸 인류에게 불로불사를 주는 구세주 조희성님

은 영적인 말씀인 고로 생명과일이 영생의 영이요? 영생활 영은 사람을 이기는 영이요, 마귀를 이기는 영이요? 그리고 영생의 영이 생명과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하자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과일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생명과일은 바로 구세주 주인공이나 알고 있는 거지 보통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대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구세주만이 알고 있는 고로 오늘날 이 사실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보아서 틀림없는 구세주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성령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므로 틀림없는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고로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지으려야 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만 영생을 얻는 거지 죄를 지으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구세주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구세주가 전지전능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마귀 지어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 그건 크게 착각을 한 것이요. 죄라는 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지 세 번 이상 범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범죄를 되풀이해서 하는 사람은 지옥을 꼭 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성령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구세주하고 가깝다, 구세주하고 가깝게다, 친척관계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구원을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크게 잘못된 생각이요? 하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구세주는 가장 공의로운 구세주인 고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지으려야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 던질 때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입술로나 범죄를 한다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구세주는 되도록이면 구원을 줄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영생을 줄려고 하지만 심판날에 백보좌 심판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고로 범죄한 죄인은 지옥에 던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 던질 때 지 않으려면 범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지으려야 할 수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죄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거죠? 구세주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생활하

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요.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구세주의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되는 고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세주가 때가 되면 사면령을 내리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고로 이 사람이 사면령을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죠? 그리고 사면령을 내려서 사면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다면 바로 의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또 범죄를 한다면 그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야 돼요. 공로를 세워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서 깨끗하게 생활할 때에 마지막 날에 온 세계 만민들을 다스리는 왕의 반열에 서는 거죠?

왕의 반열에 서는 의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

왕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 만민들을 이제 살리고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왕 노릇을 영원무궁토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왕 노릇하는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구세주와 같이 광명한 빛은 아니어도 빛이 나가며 그 빛으로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취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왕의 명령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하여 왕의 반열에 서서 이제 못 인 생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이 되어 되겠어요? '선지자와 왕들 반열대로 서서 금길 다닐 때 항상 이 찬미하네' 하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보세요.

생명과일의 실체는 구세주의 얼굴

성경 상에는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생명과일이 어떻게 생긴 것이라든가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생명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써어 있지 않아도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은 확실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생명과일이 영생의 영이요? 생명과일이 영생의 영으로 사망의 영을 이기는 영이요, 사망의 영을 소멸시키는 영인 고로 생명과일은 바로 구세주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죠? 구세주가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감로이슬성신이 생명과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세주의 얼굴을 초초로 바라보면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세주의 사진을 바라보면 구세주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 얼굴은 잘 떠오르죠? 그런데 구세주의 얼굴은 왜 잘 안 떠오르느냐면 구세주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신인 고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겼다가 되면 바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고로 생명과일을 계속해서 먹었다가 되면 바로 이긴자가 되었다가 되고 구세주가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었다면 구세주와 같이 광명한 빛은 아니어도 빛이 나가며 그 빛으로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취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왕의 명령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하여 왕의 반열에 서서 이제 못 인 생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이 되어 되겠어요? '선지자와 왕들 반열대로 서서 금길 다닐 때 항상 이 찬미하네' 하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보세요.

2002년 1월 11일 말씀 중에서

인류의 아버이 구세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진행이 뛰어난 이승우 사회자



구세주 조희성님을 대신하여 축하환을 받으시는 이영자 총재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 신도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이끌어낸 무궁화합창단



아버이날을 경축하는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 2곡을 열창한 리준경 가수



무궁화관현악단을 지휘하는 김성우 음악총감독



어머니 주제가 메들리로 심금을 울린 부산제단



영당을 들쭉거리게 만드는 무궁화관현악단의 파워풀하고 신명난 연주



관현악 이리랑연주에 신이난 성도들이 흥을 내고 있다



조건우 김건균의 파워풀한 중창

무궁화합창단 박인숙 반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무궁화합창단 박철수 지휘자